격자 기반 암호 개요

(Lattice-Based Cryptography)

IT정보공학과 신명수

목차

- 1. Base
- 2. Lattice
- 3. Learning With Error (LWE)
- 4. Learning With Rounding (LWR)
- 5. LWE-based Encryption

PQC(Post Quantum Cryptography)의 필요성

- Shor 는 소인수분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제안.
- 이러한 알고리즘이 적용가능한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기존 암호화 시스템을 깨트릴 수 있으며,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인 RSA 또한 그 대상임.
- 양자컴퓨터의 계산능력에 내성을 가진 암호화 시스템이 필요하다.

주요 PQC 후보

• Lattice-Based : 격자 기반

• Code-Based : 부호 기반

• Hash-Based : 해쉬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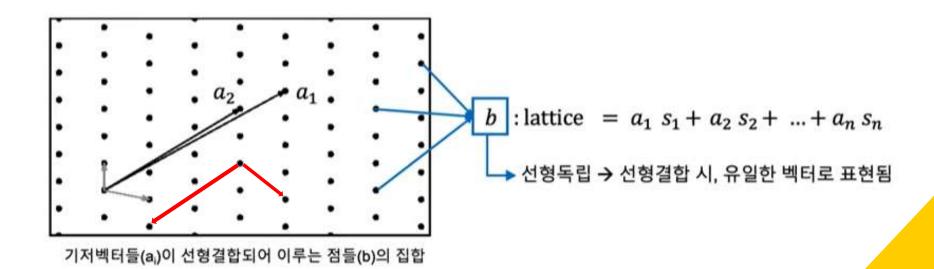
• Isogeny-Based : 아이소제니 기반

• Multivariate : 다변수 다항식 기반

2. Lattice

- R^n 의 이산적 덧셈 부분군 -> a_i 로 vector space R^n 과 L 생성.
- 기저(basis) : 모든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n차원 벡터공간 내의 임의의 원소들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벡터.

1. Lattice



2. computational problems on lattices

- 고전적 격자 난제
- SBP (Smallest basis problem) : 좋은 기저(=직교에 가장 가까운 기저)를 찾는 문제.
- SVP (Shortest Vector Problem) : 격제 L이 주어졌을 때, 0이 아닌 최소 길이를 갖는 벡터를 찾는 문제. 차원이 클수록 찾기 어려우며 100차원 이하까지는 풀 수 있음.
- CVP (Closest Vector Problem) : 격자 L과 한 점이 주어졌을 때, 그 점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 벡터찾기. 둘러싸고 있는 벡터 2^n 개의 후보를 갖고, 차원이 커질수록 찾기 어려움.

2. computational problems on lattices

- 거의 **직교인 기저**가 있으면 SVP, CVP 문제는 쉽게 풀린다. SVP -> 거의 직교인 기저라면, 기저벡터 중에 가장 짧은 벡터가 있다. CVP -> 정사영을 사용해 길이를 재면 가장 가까운 격자 벡터를 찾을 수 있다.
- 격자를 주려면 기저를 줘야하는데, 기저를 잘못주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음.
- 어떤 경우에 문제가 쉬워지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움.
- 매우 나쁜 기저를 줘도 한두번 연산으로 쉬운 기저가 나오기도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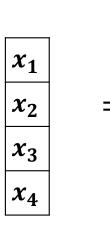
• 최근의 난제 : WC = AC equiv(Worst Case Average Case equivalent) 평균적인 케이스가 최악의 케이스와 동치 -> 어떤 상황에서도 난도를 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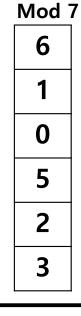
- LWE (Learning With Error)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난제

 - 작은 에러를 포함한 연립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. (에러가 없으면 쉬운 문제)
 - A와 As + e 가 주어졌을 때, s를 구하는 문제.

- LWE (Learning With Error)
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난제
 작은 에러를 포함한 연립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. (에러가 없으면 쉬운 문제)
 A $(A \in \mathbb{Z}_p^{m \times n})$ 와 b(= As + e) 가 주어졌을 때, s를 구하는 문제.

0	5	2	3
1	3	6	9
3	0	8	5
4	7	9	3
1	0	6	5
4	9	2	7





	x_1	
라고 했을 때,	x_2	찾기 쉽다.
—,	x_3	
	x_4	

- LWE (Learning With Error)
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난제
 작은 에러를 포함한 연립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. (에러가 없으면 쉬운 문제)
 - A와 As + e 가 주어졌을 때, s를 구하는 문제. $e = \{-1,0,1\}$, $or e = \{GD(0,\sigma), (\sigma = 2.6)\}$ Noise vector e

0	5	2	3
1	3	6	5
3	0	4	5
4	6	5	3
1	0	6	5
4	5	2	4

 x_1 $\boldsymbol{x_2}$ $\boldsymbol{x_3}$ x_4

 x_1 $\boldsymbol{x_2}$ x_3 x_4

찾기 어렵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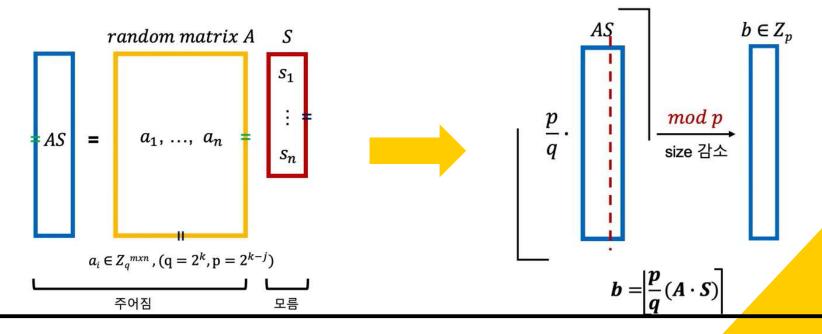
- LWE (Learning With Error)
 -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난제
 - 작은 에러를 포함한 연립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. (에러가 없으면 쉬운 문제)
 - A와 As + e 가 주어졌을 때, s를 구하는 문제. $e = \{-1, 0, 1\}$, $or e = \{GD(0, \sigma), (\sigma = 2.6)\}$

• N이 100 이하일 때는 쉽지만, N이 200 이상일 때는 매우 어렵다.

- m개의 sample (A,b)가 주어질 때, 계산된 LWE sample인지, random (A,u)인 지 구분할 수 없게 됨.
- $(A, b = A \cdot S + e \mod q)$ 를 만족하는 S가 존재하는지, random 선택된 것인지.

4. Learning With Rounding (LWR)

- LWR sample인 (A,b)가 주어질 때, 비밀키 S 찾는 문제 Rounding 을 통해 잘라내면 찾기 어려움
 - Rounding : 원래 값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자릿수를 원하는 만큼까지 줄이는 방법.



4. Learning With Rounding (LWR)

Rounding

 $q \le 2^{13} : 1011100100111$

 $p \le 2^{10} : 1011100100$

-> 뒤쪽부터 (q-p) bit 만큼 잘라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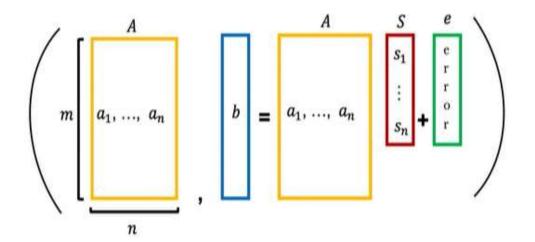
많이 자를수록 S를 찾아내기 힘들지만, 복호화 시 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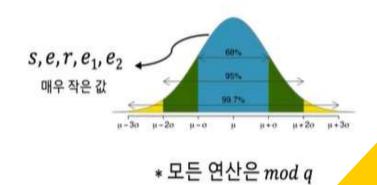
• m개의 sample (A,b)가 주어질 때, 계산된 LWR sample인지 mod p상에서의 random (A,u)인지 구별하기 힘들다.

$$\bigstar \left(A,b=\left|\frac{p}{q}(A\cdot S)\right|\right)$$
를 만족하는 S 가 존재하는지, random 선택 된 것인지

5. LWE-based Encryp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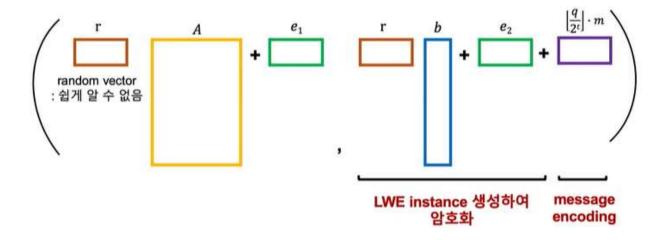
• Public key : (A, b = As + e), secret key : S





5. LWE-based Encryption

• Cipher text : $(C_1, C_2) = (r \cdot A + e_1, r \cdot b + e_2 + \left| \frac{q}{2^t} \right| \cdot m$



 \bigstar 송신자가 (C_1, C_2) 만들기 위해 가우시안분포에서 e_1, e_2 를 뽑아서 사용 (message마다 새로 선택)

 \rightarrow 수신자는 e_1 , e_2 모름